

서울시의회, 세대간 소통 장벽 허문다 … '관리자 소통혁신 프로젝트' 착수



MZ 세대 공무원(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이 공직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세대·직급 간 소통의 벽을 허물 '관리자 소통 혁신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관리자 소통역량 강화 특별교육'이다. 의회 사무처의 관리자들이 솔선해 MZ세대 직원들의 문화와 성향을 폭넓게 이해,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이끌어 줄 '소통 리더십'을 키워간다는 취지다.

이번 교육은 의회 사무처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9월 17일과 30일 두 차례 교육이 진행되며, 향후 5급 팀장급 관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내 20~30대 직원 비율은 2015년 29.6%에서 2025년 42.2%로 최근 10년 간 12.6%p 증가했다. 사무처 내 베이비붐 세대부터 X, Y, Z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근무하면서 세대별 문화 차이를 이해한 효과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조직의 세대구성 변화에 발맞춰 ▲성장 ▲성과 ▲실용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은 일방적 강의가 아닌 '참여형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관리자가 현장에서 겪은 소통 어려움을 공유하는

한편, 여타 조직 사례 연구와 실습을 통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통법을 익히게 된다.

명확한 업무 방향 제시, 신뢰할 수 있는 피드백 제공 등 MZ 세대의 성향에 발맞춘 '소통리더십'의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제시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관리자 소통혁신 프로젝트'를 소통으로부터 업무 효율과 성과로 끌어올릴 새로운 조직 혁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의 장벽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협력과 신뢰를 구축해 갈 수 있다"며 "관리자가 솔선하는 이번 교육이 의회 구성원 간의 차이는 줄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조직 혁신의 싹이 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영등포구의회, 2025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마무리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5년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당서초교, 당중초교, 신대림초교, 영등초교 등 4개 초등학교에서 총 10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의장, 의원, 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순서로 ▲개회식 ▲사무국장 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및 의결 등을 진행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2분 자유발언에서는 '축복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낮추자', '흡연을 하지 말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등 총 11건의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했다.

이어서 '만려동물 유기 중지를 실천

하기 위한 결의안'과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했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의회교실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에 만족한다'는 질문에 97%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압도적인 만족도를 드러냈다.

정선희 의장은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미래의 민주시민인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학생들이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춘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인천시의회,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등 선진사례 확인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재동)는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등의 선진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 후 이를 인천시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공무국의출장을

진행하였다.

이번 공무국의출장은 단순한 의례적 시찰을 벗어나 의원과 직원이 함께 준비·진행하는 내실 있는 출장으로 기획됐다. 행정안전전문위원실에서 직접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자와 접촉하고 공문을 발송해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의원과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현지에서는 트램과 공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북유럽 교통체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까지 얻었다.

또한 일부 일정에서는 공유형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높은 물가를 감안해 의원과 직원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등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했다. 이는 최

근 지방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적돼온 '형식적이고 과도한 예산 집행' 문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됐다.

김재동 위원장은 "이번 출장은 의원과 직원이 함께 철저히 준비한 만큼 형식적 방문을 넘어 인천의 정책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유럽 도시들과의 정책 교류로 인천시의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심하린 기자

군포시의회, 추경예산 8억8천만원 삭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8억8천만원 삭감을 의결했다.

9일부터 18일까지 제283회 임시회를 운영한 시의회는 시정 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사업,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약 710억원 규모의 시 추경안을 심사해 3개 사업의 사업비를 전면 삭감 또는 감액 처리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전액이 감액된 삭감 항목은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을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4억8천만원과 주

요 교차로 등 교통안전표지 개선사업비 2억원이며, 부분 삭감된 항목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로 5억원 중 2억원의 감액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실시설계에만 약 5억원, 본 공사비가 70억원에 달할 철쭉을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탁기관인 문화재단에만 거의 일임하는 현재 사업방식은 관리·감독 등의 실효성이 의심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이우천,이훈미,이동한,이혜승 의원)라고 의견을 밝혔다.

시의회 김귀근 의장은 "민생 회복을 위해 시 추경안 중 삭감 항목을 최소화했지만,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한 것으로 안다"라며 "제9대 의회 후반기의 모든 의정활동은 민생을 우선으로 하고, 효율적 시정 운영이 이뤄지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민수 기자

고준호 도의원, 극저신용대출 2.0 '세금 약순환·빛잔치'



'극저신용대출 2.0'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내려오는 것은 단비가 아닌 썩은 동아줄"이라며 감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최근 10년 또는 100개월 조장기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될 경우,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극저신용대출 2.0 채무자 상당수가 향후 배드뱅크에 편입돼 사실상 빚을 탕감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소각하는 제도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과주1)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그는 또한 "성남시에서 시작된 빚 탕감 프로젝트 '주빌리은행'은 이재명 대표가 알린 실험이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설립해 극저신용대출을 내놓으며 빚을 빚으로 덮는 구조를 확장했다"며 "김동연 지사가 이를 답습해 경기도를 또다시 실험장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에 대한 구체적 수치도 언급했다. 고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기도 부담금만 1,715억 원이며, 2년 거치·3년 균등분할 상환, 연 3% 이율 조건으로 2025~2026년 매년 이자 51억 원, 2027~2029년에는 원금 572억 원과 잔액 이자를 합쳐 연간 600억 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 세금으로 지워주는 것이 무슨 경제 선순환이냐"며 "이는 명백한 세금의 약순환이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민수 기자

김용성·최만식 의원, HPV 백신 지원 확대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과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2)은 1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년참여기구 이종민·황윤택 대표와 함께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지원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청년참여기구는 도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거버넌스로, 올해만 100여 건의 정책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청년 건강권 보장'의 일환으로 마련된 HPV 백신 접종 지원 확대안이 최종 선정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청년들이 의제

설정부터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만 알려져 왔으나, 구인두암·항문암 등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지원이 현재 여성·저소득층 위주로 제한돼 있다.

김용성 의원은 "HPV 백신이 흔히 여성 백신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남성 대표가 백신의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한 점이 인상적"이라며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도입 중 장기계획' 연구에서 9가 백신 도입과 및 대상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경기도에서 청년 건강권을 고려해 함께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만식 의원은 "HPV 백신의 남성 예방 효과까지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청년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도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수 기자

